

구례구는 求禮入口의 뜻

「지리산」「구례」「화엄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어떻게 보면 같은 뜻을지닌 다른 표현이라 할 수도 있는데 求禮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겠으나 우리들의 생각에는「지리산」「화엄사」라는 말이 「구례」라는 말보다는 귀에 익지 않았을가 싶다.

모르긴 하지만 「구례화엄사」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례의 화엄사」라는 뜻과 함께 「구례 하면 화엄사」라는 代表格의 表現도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求禮를 찾는 사람. 그보다는 지리산이나 화엄사를 찾으려고 기차를 탄 사람이면 누구나 낯선 표현의 驛名을 듣고 거기서 下車를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구례구」다. 한글로만 되어 있어 앞·뒤로 읽어도 같으니 便利하겠단 생각했으나 자칫하면 「구례구」니까 다음에 「구례」가 되겠지 했다가는 지나치고 말게 된다.

고을 이름을 부쳤거나 고을 이름앞에 東·西·南·北이 섞워진 驛名은 많으나 고을이름 밑에 꼬리가 달린 「구례구」는 꼭 特異한 表現이 아닐 수 없어 알아왔더니 지금 「구례구, 驛이 있는 地域은 全羅南道 求禮郡이 아니고 行政區域上 같은 全羅南道の 昇州郡黃田面이어서 남의 郡地域에 제고을 이름을 부칠 수 없어 구례로가는 入口, 求禮入口라하여 「求禮口」가 되었다 한다.

求禮하면 華嚴寺연상

이제 우리도 넓은 큰 마을 가집에서 고을 이름에 꼬리를 달고 있는 驛名쯤은 산뜻하게 고쳐부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가 싶어 「구례구」를 「구례로」 고쳐 부를

「求禮口驛」을 「華嚴寺驛」으로

國立公園 智異山의 關門에 알맞는 이름으로

金久五 (KID 研究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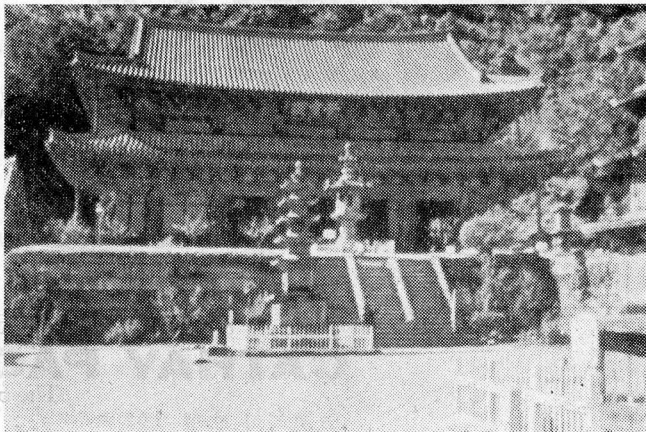
수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 문득 생각난 것이 「구례화엄사」라는 慣用語여서 驛名을 훑어 보았더니 意外로 그 地方의 有名한 寺刹——그러나 화엄사 보다는 덜 有名한——의 이름을 딴 驛名이 많았고 최근에 고을이름이던 驛의 이름을 國立公園, 道立公園의 代表的인 寺刹 이름으로 바꾼경우도 發見되었다.

寺刹이름붙인 前例 많아

長項線의 挿橋驛이 德山道立公園이 指定되면서 代表寺刹인 修德寺의 이름을 따라 修德寺驛으로 改稱되었고 湖南線의 四街里驛이 內藏山國立公園의 代表寺刹인 白羊寺를 따라 白羊寺驛으로 改稱되었는데 이들 寺刹 이름을 따라 改稱된 驛들은 우리나라 古來의 傳統的인 건축양식으로 아름답게 신축된 驛舍를 자랑하고 있어 名勝地關門으로서의 모습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 밖에도 寺刹 이름이 붙은 驛名은 佛國寺(東海南部線) 直指寺(京釜線) 望月寺(京元線) 회방사(中央線) 성주사(鎭海線) 라솔사(慶全線) 홍곡사(麗水線) 등 적지 않은 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求禮口」라는 거치장스럽고 꼬리가 달리고, 좁은 所見의 產物 같은 이름을 「화엄사」로 바꾸어 산뜻한 느낌을 지니게 했으면 좋겠다.

驛名을 바꾸는 경우에는 기차포의 인쇄비와 몇개의 안내간판이 고쳐져야 되겠으나 문돈이라 할 수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겠고 지금 「求禮口」로서의 낡은 舍屋을 화엄사 각황전과 비슷한 새 모습으로 新築한다면 한결 훌륭해지겠으며 最初로 指定된 國立公園의 主關門으로서는 당연히 그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華嚴寺驛의 驛舍는 이런 樣式으로